‘햇살도, 마음도 쉬어갓’…돌산갓 마을축제 ‘갓섬피크닉’

여수시 19일부터 이틀간…캘리그라피·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 주도 시민참여형 축제…냅킨공예 등 볼거리·체험거리 풍성

여수 돌산갓 마을축제인 ‘갓섬피크닉’이 오는 19·20일 이틀간 돌산갓고을센터 일대에서 개최된다.

‘갓섬피크닉’은 돌산갓청년단과 돌산읍 주민 등 시민축제기획단이 만든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마을축제다.

올해는 ‘햇살도, 마음도 쉬어갓!’이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소풍을 즐기고 여수 돌산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다양한 공연팀의 무대, 시민 참여형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된다.

또한, 갓캐릭터 뱃지와 에코가방, 바다유리 목걸이 만들기와 조개껍데기 냅킨 공예, 갓캐릭터 커피박 클레이, 스마트파머 갓 및 버섯 키우기, 보물찾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돌산갓을 활용한 갓섬도시락과 어머니 먹거리장터를 통해 돌산읍 주민들의 맛있는 로컬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갓섬카페에서는 벚꽃 봄차티를 무료로 제공한다.

돌산갓 고유품종(10종) 및 농기계 야외전시, 농부마음 로컬마켓, 키즈놀이터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시 관계자는 “‘갓섬피크닉’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들이 주도한 시민 참여형 축제”라며, “돗자리, 바구니, 캠핑의자 등을 준비하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다”고 귀뜸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제 당일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가족단위 갓김치 담그기 체험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어 SNS 채널(@갓섬.돌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약 문의는 여수돌산갓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061-659-5224, 5225)으로 하면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Option 01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Option 02
순천정원워케이션

Option 03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SNS 미션 수행하고 숙박권 받으세요”

30일까지 ‘데이 in 순천’이벤트
세계유산축전 홍보…숙박권 제공

순천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순천 1박 2일 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월드 헤리티지 데이 in 순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유산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홍보 이벤트로, 개인 SNS에 간단한 미션을 수행한 내·외국인에게 순천에서의 1박 2일 숙박권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순천세계유산축전’ SNS 채널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글을 좋아요, 댓글, 공유해야 한다. 이후 개인 SNS 채널에 ‘순천세계유산축전 한국말 응원 영상’, ‘참여 희망 에세이’, ‘순천 세계유산 소개’ 중 하나를 골라 게시하고 네이버 폼으로 인증하면 된다.

선정된 15팀에게는 순천정원워케이션, 순천만에코촌, 순천전통야생차체험관 등 순천을 대표하는 숙박시설 중 한 곳의 숙박권이 제공된다.

숙박권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기간인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중 하루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월드헤리티지데이 in 순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 세계유산축전 누리집(www.scwhf.com)을 참고하면 된다.

김준선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세계에 미리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국내·외 관광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암사와 순천 갯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순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유산 가치를 손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할머니 손편지로 이뤄낸 곡성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후끈’
도시 청년층 공감…목표액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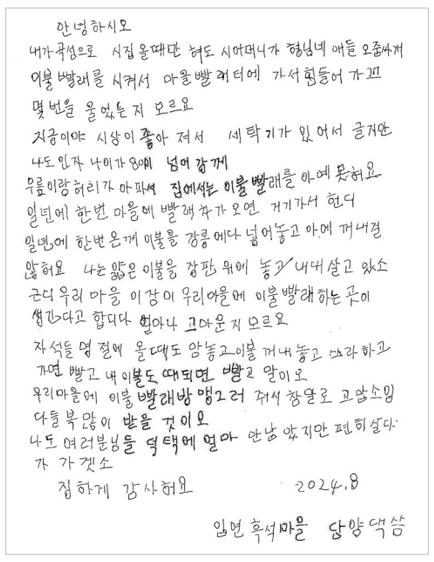
곡성군은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해주세요 시즌1(출장진료)과 시즌2(상주의사 진료)’에 이어 세 번째 지정기부 사업인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 모금액(1억886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인구소멸지역 중 하나인 곡성군은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여 마을빨래방 프로젝트를 지난 2024년 7월 25일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곡성군에서는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도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통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곡성에 사시는 할머니의 인생과 진심이 담긴 답례 편지〈사진〉를 기부자들에게 보냈다.

“돈으로 기부만 할 생각이 었는데, 왜 눈물까지 주시나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빨래방 열 번, 백번, 천 번 이용하세요.”-실**니-

“연말정산으로 받는 혜택보다 할머니 손편지의 감동 더 크네요” -c****y-



안녕하시오
내가 곡성으로 시집올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 오줌싸개
이불 빨래를 시켜서 마을빨래터에 가서 힘들어 가끄
몇번을 올었는지 모르오
지금이야 시상이 좋아 져서 세탁기가 있어서 글지만
나도 인자 나이가 오에 넘어 갈 께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는 이불 빨래를 아예 못허요
일년에 한번 마을에 빨래차가 오면 거기가서 한다
일년에 한번은 께 이불을 강릉에다 넣어놓고 아예 꺼내질
않허요 나는 옳은 이불을 갈판 위에 놓고 내대 살고 있소
근데 우리 마을 이장이 우리아을에 이불빨래 하는 곳이
생긴다고 합디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오
자식들 명절에 올때도 암놓고 이불 꺼내 놓고 쓰라 하고
가면 빨고 내 이불도 때되면 빨고 말이오
우리마을에 이불 빨래방 맹그러 줘서 참말로 고맙소잉
다들 복 많이 받을 것이오
나도 여러분님들 덕택에 얼마 안남 았지만 편히 살다
가 가겟소
집하게 감사허요 2024.8
임면 흑석마을 담양 댁 씀

할머니의 손글씨가 담긴 답례편지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도시의 청년층들이 우리 지역의 마을빨래방 사업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부에 동참해 주었다. 그 결과 모금 9개월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

마을빨래방이 조성되는 지역은 지역 내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2개소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은 빨래방 공간 조성비, 세탁기 등 물품구입비, 배송 차량 운영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마을빨래방 사업 외에도 지역의 아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주 의사 인건비를 모금하는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시즌2’와 지역 내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이 안락사보다는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 프로젝트’를 고향e음과 위기브, 농협 외 4개 은행을 통해 모금 중에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마을빨래방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1500여 명의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곡성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가슴 깊게 새기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깨끗한 이불을 덮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다른 지정기부사업이 기부자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

4년만에 태어난 세쌍둥이 백일 축하…광양시 후원금 전달

정인화 시장, 직접 방문 축하 메시지

광양시가 15일 백일을 맞이한 세쌍둥이 가정을 방문해 축하하고, 후원사의 육아용품 구입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광양시 출생아 수는 총 941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 연초 두 가정에서 삼태아가 태어나 큰 화제가 됐다.

광양시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난 건 4년 만의 일이며,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해당 가정을 방문해 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이들에게는 덕담을 전했다.

정 시장은 아이들에게 “광양시에서 태어난 것을 축복하고 환영한다. 항상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하며 백일 축하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부모에게 전달했다.

삼태아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의 백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정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2022년도에 광양시에 전입했다”며 “임신과 출생에 대한 지원이 많은 덕분에 아이들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시장은 “양육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삼태아를 키우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돌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15일 세쌍둥이 가정을 방문해 백일 기념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광용 DYE 대표도 세쌍둥이 가정을 함께 방문하여 백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육아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후원했다.

한편, 세쌍둥이 가정의 산모는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165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우주랜드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다음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고흥군이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제안 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부지(15만 9612㎡)에 우주·항공 테마의 관람, 체험, 교육,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고흥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사업 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된 바 있으나, 최근 법원의 관련 소송 기각 판결 등으로 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달 15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4월 23일까지 질의접수를 받고, 5월 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은 후 5월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공모 마감 후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지침서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자에게 사업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사업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과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우주랜드는 우주항공과 관광을 접목한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의적이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 ‘인구문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국 지자체장 릴레이 참여

김철우 보성군수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역과 공공기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전국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군수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하승철 하동군수를 지목해 지역 간 공동 대응의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 온 인구정책의 성과와 철학을 군민과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실제 보성군은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청년·정주 여건을 잇는 입체적 인구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과 인구 감소 둔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2022년 0.79였던 합계출산율이 2023년 1.09, 2024년 1.20까지 꾸준히 상승하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9위에서 8위로 크게 도약했다.

출생아 수도 2022년 81명에서 2024년 117명으로 늘어나며 2년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구 지표가 확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 노후가 안정적인 터전을 고루 갖춘 ‘살고 싶은 보성’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찾아오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하포마을에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혈압·혈당 검사 등 건강 검진
영화관람 문화서비스도 제공

광양시의 맞춤형 보건·복지·문화서비스인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14일 골약동 하포마을을 방문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는 이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인바디 검사·눈 건강 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경 세척·칼갈이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날 오후 주민들은 제공된 팝콘과 함께 영화관람도 즐기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 ▲광양시자원봉사센터의 이·미용, 네일아트, 안마 서비스 ▲광양시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 ▲광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소화기 교체 지원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내실 있고 안전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현일 하포마을통장은 “농촌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건강도 살피고, 정보도 알려주고, 마음도 풍요롭게 해주니, 모처럼 마을에 활기가 넘치고 주민들이 선물을 한가득 받는 것 같아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옥병 골약동장은 “보건·복지·문화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 전남 행복버스를 운영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살기 좋은 골약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지자체가 협업해 2021년 8월부터 취약지역을 찾아가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 4회 총 270개 마을을 방문해 7000여 명에게 26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